

고삐 풀린 청소년들...도 넘은 일탈행위 어저나

작년 광주·전남 2,336명 검거
‘5대 범죄’ 하루 평균 6명 이상
형량 상향 등 처벌 강화 여론
“자아성립 등 교육 제도 필요”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대담해지고 흉포화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 매년 절도, 폭력, 강

간 등 5대 범죄로 검거된 소년범이 2,000여명에 달하면서 이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5대 범죄(살인·성폭력·강도·절도·폭력)로 검거된 만14세 이상 19세 이하 소년범은 6,911명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2,661명, 2021년 1,914명, 2022년 2,336명으로 매일 6명 이상의 청소년이 5대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4,226건(6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 3,370건, 성폭력 380

건, 강도 22건 순이었다. 살인 혐의로 검거된 청소년은 없었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 범죄자를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범죄는 크게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과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나뉜다.

소년법 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가능하지만 대부분 보호처분에 그친다. 또한 범죄소년의 경우 최대 형량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 유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잔인해져 처벌 강화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무안에서는 또래 청소년을 모텔에 가두고 집단 폭행한 고등학생 A군(15)과 공범 2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B군(15)과 촉법소년인 C군(13)도 불구속 송치됐다.

A군 등은 지난 10일 D군을 목포 한 모텔방에 가두고 집단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D군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을 심하게 다쳐 6주간 치료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소년 범죄자들의 형량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취직 등 사회적 경력을 쌓을 시기에 교도소에 갇히면서 수입 활동을 위해 또다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가정 내부 환경 등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위기청소년들의 사회화와 자아 성립을 위한 교육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훈 전 광주남부지소 취업선도위원회 회장은 “소년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의 80%는 조부모 및 소년·소녀 가장이면서 자아가 성립되기 전 교육부재가 범죄로 이어지기도 했다”며 “현재 청소년 범죄의 증가가 가장적인 문제가 있는 지 진단이 필요하며, 이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찬기 기자



긴 가뭄 끝에 단비
긴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에 단비가 내린 23일 오후 전남대 광주캠퍼스 용지에 능수버들이 싱그러운 연둣빛 잎사귀와 꽃망울을 터트리자 학생들이 걸음을 잠시 멈추고 힐링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허위 학력 기재’ 도의원 벌금 80만원

당선무효형 면해 직위 유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학력이 기재된 선거공보물을 제작·유포한 현직 전남도의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

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 사회복지학 석사, 2019년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두 학위 사이에 중점을 찍어 마치 사회복지와 경영학 박사를 모두 취득한 것으로 유권자들로 하여금 공정하고 합리적 판단

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6월1일(제8회 지방선거) 이전에 입장문을 게재해 학력 표시에 대해 사과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따라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최환준 기자

고 이금주 회장 ‘어디에도 없는~’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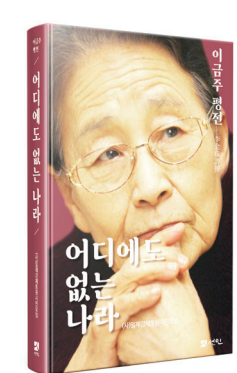
일제 피해자들 명예 회복 앞장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평생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앞장선 고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 회장의 평전 ‘어디에도 없는 나라(사진)’가 출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책은 결혼 2년만에 일제에 의해 남편을 잃고 여생을 일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매진해 온 이 회장의 투쟁과 고뇌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남편을 잃은 이 회장은 독재 정권하에서 사실상 일본을 상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 69살이 된 1988년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를 결성하고 초대 회장을 맡은 뒤 30여년간 일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한 길을 걸어왔다.

1992년 원고 1,273명이 참여한 ‘광주천인 소송’을 대일 투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 소송을 시작으로 일본군 위안부와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원고로 참여한 ‘관부재판 소송’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등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7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노구를 이끌고 일본을 80여차례 오가며 투쟁의 전면에 섰고, 이 회장의 노력은 결국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로 이어졌다.

이 회장의 공로를 인정한 정부는 2019년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일본의 사죄를 받지 못한 채 2021년 12월 10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민찬기 기자

돈내기 웃놀이하다 지인 살해 60대 긴급 체포

돈내기 웃놀이를 하다 지인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23일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고흥군 녹동 한 마을의 사랑방 구실을 하는 컨테이너 건물에서 동네 선후배 관계인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4개월 만인 이달 20일 사망했다.

경찰은 병원 입원 환자가 숨진 이 사건이 일반적인 변사가 아닌 강력 사건임을 인지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웃놀이로 돈을 딴 B씨가 자리를 뜨려 하자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다수 확보한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수사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B씨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흥=진중언 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